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

전북중기청,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감염증 예방 관련 벤처 등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체 수출시장 발굴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가 본격 지원된다.

또한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 수출혁신 선도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국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상은 전년도 대(對)중국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3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 및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등 기타 수출혁신기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 지원을 위해 대면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선정한다.

선정될 경우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

를 지급하며,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내에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고 유용한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감염증 진단기기 등 유망분야 벤처·스타트업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의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내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올해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다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러스 취약계층인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9일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농지은행사업 방문상담 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농지은행사업 방문상담 계약 서비스 운영

농어촌공 전북본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러스 취약계층인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9일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농지은행사업 방문상담 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방문상담 계약 서비스는 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지사업(장기임대차, 농지연금, 경영이익직불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으로써 사회·보건의적 약자 배려와 감염병에 대한 불안

감을 줄여주고,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행한 후, 방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발열 등 유증상 의심자가 있을 경우 보건소(1339)

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취약계층(고령인)에게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세정제 비치도 잊지 않고 시행중이다.

이강환 본부장은 "현장지원 방문 서비스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확산세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고객과 직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애완동물 주기적인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필요

건협 전북지부, 내시경 검사에서 장내 개구충 희귀 감염사례 발생

전북에서 애완동물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발견돼 애완동물에 대한 철저한 기생충 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협회 회원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60대

남성이 개구충 감염이 최종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내시경 검사 시 하행결장의 점막에 실 같은 형태의 선충류 한 마리가 발견됐고(Figure-A,B),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

생충병연구소로 이송돼 형태학적, 분자학적 분석을 통해 개구충(Acylostomum caninum)으로 진단됐다. 충체의 머리 부분의 구강(buccal cavity)내에 3쌍의 치아가 있는 특징이 있었으며(Figure-C), 5.8S rDNA 유전자 분석에서 개구충의 유전자와 일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Figure-D).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단단한 달걀 생산으로 산란계 농장 소득 'UP'

농진청 "산란 중기 이후 사료에 비타민C 복합유기산제 첨가하면 껍데기 강화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장단계에서 달걀 껍데기를 단단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껍데기가 손상된 달걀은 농장 단계에서 약 5~6% 발생하고, 대부분 액란으로 저렴하게 판매되어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산란계의 달걀껍데기 생성을 위한 칼슘 공급원은 주로 석회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껍데기를 강화하는 사료첨가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산란 중기(약 45주령) 이후 사료에 비타민C 또는 복합유기산제를 첨가하면 달걀 껍데기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산란계의 주령이 오를수록 생체 내 비타민C 등의 합성 능력이 낮아지면서 달걀 껍데기가 약해지는 것을 알아냈다. 산란 중기 이후 사료에 비타민C를 500mg/kg 섞어 먹이면 산란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달걀 껍데기의 강도가 2.3% 개선됐다. 복합유기산제를 10g/kg 사료에 섞어

먹일 경우에도 산란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달걀 껍데기의 강도가 5.7% 높아졌다.

연구진은 또한 농장의 달걀 운송 구간에서 달걀 껍데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달걀형태의 '이동형 충격감도 감지기'를 이동시키면서 일반 달걀이 받는 각 구간별 충격 강도를 조사했다. 이 결과, 조사 대상 농장에서는 승강기 탑승 구간, 선별대 입구 등에서 달걀이 강한 충격을 받았고, 해당 구역에 완충 유도장치를 만들어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때 농장마다 달걀 운송 시설에 차이가 나므로 농장별로 달걀 운송 시설의 문제 구간을 확인하고 완충 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영민 가금연구소장은 "껍데기가 손상된 달걀이 생기는 원인은 닭의 주령, 질병, 사료 영양소, 환경 등 다양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달걀이 공급되고 국내 산란계 농가 경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020년 시즌' 무주덕유산CC, 12일 개장

그린피, 일반요금 기준 주중 8만원·주말 13만원으로 이용

청정 고원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긴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개장한다.

휴장기간 동안 코스와 시설 정비, 서비스 교육 등을 마치고 2020년 시즌을 새롭게 단장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 해발 900m에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 / 아웃코스 파36, 야드 3,472)를 보유했다.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이용해 만든 코스로 그 정성과 시간이 흠 곳곳에 느껴진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해부터 가족호텔과 카니발 상가 등 주요 시설물들을 리뉴얼함으로써 골퍼들이 보다 편하게 시설물들을 이용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피는 일반요금 기준 주중 8만원부터 주말 13만원(회원이 별도 / 기간별 상이)으로 이용가능 하다. 특히 주중 오전 7시 30분 이전 티오프시 6만 원 조조할인 요금이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덕유산CC 전경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구매사업 본격 추진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9일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에 2020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를 공고하고 혁신시제품 지정 및 구매사업의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은 정부가 상용화 전 혁신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어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달 방식이다.

조달청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혁신장터(ppi.g2b.go.kr)'에 등록된 제품은 수요기관 예산으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정분야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규제특례실시를 통과한 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한다.

혁신 시제품 지정 분야는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치안, 문화 등 국민생활문제 전 분야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인공지능(AI), 로봇이 포함된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 구매는 1개 제안당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3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혁신조달 종합포털인 '혁신장터(ppi.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은, 코로나19 여파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
영업점 방문 어려운 고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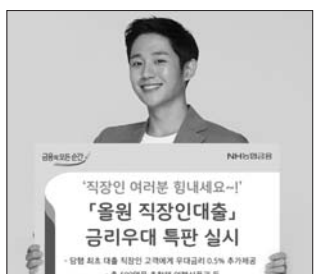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북은행의 스마트뱅크 앱을 이용하면 수신업무와 카드업무, 여신업무, 부가서비스업무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뱅킹앱 설치·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전북은행 모바일 홈페이지(https://m.bank.co.kr)를 운영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 약 3,600명이었던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약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이용중에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기존고객이 아니더라도 앱 설치 없이 원하는 계좌개설, 예·적금가입, 전자금융,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북은행 모바일 앱 이용고객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이 직접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는 것은 금융상품의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니다. 전북은행은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영업점 지원과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니즈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직원이 제시하게 되면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추천된 금융상품을 쉽게 접근하여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 서비스'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이용은 지난 12월 3,380건에서 최근 2월 현재 5,05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간편가입서비스'는 전북은행이 고객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년에 걸쳐서 구축한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BDT(Digital Branch Transformation) 시스템이다. 특히, BDT시스템은 '보이스 피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고객휴대전화 번호를 자동 체크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울원 직장인대출 금리우대 특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최근 1년간 농협은행 대출 거래가 없었거나 첫 대출거래를 시작하는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전용 '울원 직장인대출' 특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판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3천억 한도로 진행되며,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크와 울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임승규 춘향골농협조합장 재선 당선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춘향골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임승규 씨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개표 결과 김병관 후보가 567표(19.50%), 양근 후보가 964표(33.10%), 임승규 후보가 1,352표(46.50%)를 각각 득표했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 선거관위는 최다 득표자 임승규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